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 등을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는 차량이 수백대에 이르는가 하면, 지역 내 스쿨존이 1500곳이 넘는 데도, 운전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 폭력 등을 감시하고 근절하기 위해 지정된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 제도에 한 명이 10개교 안팎을 맡는 등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지적이 나온다.

스쿨존 안전 무방비... 불안한 새학기 등갯길

과속 운전·신호 위반 일쭉 불구 단속 한계 인근 잇따른 공사에 위해업소 버젓이 영업

◇아슬아슬한 등·하갯길=개학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대반 초등학교 정문 앞 5차선 도로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도로에 선명했지만 제한 속도(30km)를 지키거나 감속하는 차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지나다니는 보행자가 없을 때면 너도나도 신호를 위반하며 지나가는 차량이 쉽게 눈에 띄었다.

지난해 6월 이 학교 앞 도로에서는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1월 29일 김모(8) 군 형제가 횡단보도를 지나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추지 않고 가던 1t 트럭에 치어 중상을 입었던 화정초등학교 주변도 비슷했다. 학

교 주변 빼곡히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다시피 지나가는 보행자들의 모습도 목격됐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은 광주 571곳, 전남 1000곳으로 모두 1571곳에 이른다.

대부분의 차로엔 '어린이 보호구역 30km'란 문구가 쓰여 있지만 막상 제한속도 30km를 지키는 차는 보기 어렵다.

스쿨존 내 위반 건수도 집중 단속이 이뤄졌던 2013년의 경우 신호 위반으로 무려 785건이 적발됐고 지난해 스쿨존 내 위반 차량 적발 건수도 무려 288건에 달했다. 또 지난해 스쿨존 내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광주 20건(사망 1명·부상 19명), 전남 21건(부상 22명) 등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스쿨존 내 위반 행위가

여전하지만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신호·속도위반 등을 단속하는 카메라라는 광주 6곳, 전남 2곳에 불과하고 경찰의 단속·홍보도 학기 초에만 집중되는 실정이다. 또 대부분의 사고가 신호위반과 과속,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운전자의 부주의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교 가는 길은 '공사중'=광주·전남 일부 학교는 개학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등갯길 뿐 아니라 학교 수업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도 교육청은 학교 주변 300m 이내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을 파악한 결과, 광주의 경우 ▲유치원(2곳) ▲초등학교(20곳) ▲중학교(3곳) ▲고등학교(5곳) 등 총 30곳, 전남에서는 ▲초등학교(32곳) ▲중학교(17곳) ▲고등학교(9곳) 등 61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 등은 등·하갯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지만 공사 현장을 운행하는 대형 화물 트럭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은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해 업소 버젓이, 감시 인력·장비는 미흡=광산경찰은 지난 27일 학교정 화구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38)씨와 태국국적의 여종업원 등 4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성매매업소를 한 달 가까이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학교 주변 위해업소에 대한 감시도 시급한 형편이다.

학교 폭력 예방 등을 위해 학생안전강화학교에 설치된 CCTV의 경우 광주 12곳(24%), 전남 44곳(39.3%)에만 약간 감시가 가능한 적외선 CCTV가 설치됐을 뿐이다. 여기에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도 광주의 경우 1인당 9.8개교, 전남은 11개교 등을 맡고 있어 '무늬만 전담 경찰'이라는 평가가 여전한 실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수학여행 버스 출고연식 변조 7명 징역형 선고

출고 연도(연식)를 변조, 최근에 출고된 버스에 낡은 것처럼 속인 여행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일보 2014년 6월 11일자 6면 참조>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초·중등학교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에 필요한 관광 버스 용역계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차량등록증의 출고 연식을 합쳐 10여차례에 걸쳐 학교측에 제출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기소된 김모(여·5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10월,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기관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차량을 수학여행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고 행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전세버스 노후화 또는 정비불량 등으로 연결돼 대형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안전을 위해 차량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버스를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에 요구하자, 버스 차량등록증을 조작한 서류를 학교측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학여행 차량의 안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스쿨존 과속 운전 새학기 집중 단속

광주지방경찰청

경찰이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통학로 교통 안전에 치안력을 집중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일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생들 이동이 빈번한 등·하교 시간에 맞춰 스쿨존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고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활용한 속도 위반 차량 단속 등 주 3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달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해 초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등·하갯길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스쿨존 내 속도·신호 위반 행위는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에게 대한 지속적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향공서비스학과 신입생들 "스마일" 지난 27일 오후 광주대 향공서비스학과 향공기 모형 실습실에서 열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이 객실서비스 체험 교육을 받고 있다. /나명주기자 mina@kwangju.co.kr

잇단 총기 사고...광주·전남 1만3641정 관리 대책 절실

세종시 이어 화성서도 총기 난사 5명 사상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에서 잇따라 터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광주·전남의 총기 보유 수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광주·전남의 총포 소지 허가 건수는 각각 광주 2930건, 전남은 1만 711건이다. 광주·전남에서 모두 1만3641

정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

광주는 종류별로 권총 43정, 소총 27정, 엽총 655정, 공기총 1649정, 가스발사총 121정, 마취총 3정, 산업총 419정, 기타(도살총 등) 13정이다.

전남에서는 권총 48정, 소총 18정, 엽총 2419정, 공기총 7천140정, 공기권총 143

정, 가스발사총 181정, 마취총 151정, 산업총 591정, 기타 20정 등이다. 이 가운데 권총, 소총, 엽총, 5.5mm 단단 공기총의 주요 부품 등은 경찰이 보관한다.

지난 27일 경기 화성에서 재산문제에서 비롯한 형제간 불화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노부부와 출동한 파출소장, 범행을 저지른 노부부의 동생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앞서 지난 25일 세종시에서

도 50대 남성이 옛 동거녀의 가족들에게 업종을 난사, 3명이 숨지고 달아났던 용의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총기사고가 잇따르자 폭력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총기소지 허가를 취소하고, 가정폭력이나 이웃 간 다툼 등으로 인해 112신고가 접수된 총기소지 허가자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총기를 즉시 수거·보관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김효철기자 khh@kwangju.co.kr

"여친이 안 만나준다" 투신 소동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리간만에 올라 투신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극적 구조.

○--1일 광주광역시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0분께 광산구 수완동 성덕교 난간에 오른 조모(20)씨가 "뛰어내리겠다"고 소동을 벌이며 두시간 가량 버티다가 10m 아래로 추락했지만, 매트와 깔고 적극 대비하던 소방대원들에 의해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는 것.

○--조씨는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술을 마시고 이 같은 소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한 경찰은 "혹시 모를 추가 소동을 막기 위해 (조씨를) 전문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게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침점포 1개, 2~3침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물건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용해동 교회앞 금호아파트 사이 대지310평 전주택 2채, 무화과나무 있음
매매가 3억 (용 1억 2천)

- ① 전대정문 1분코너 룸12개, 올대리석시공, 신축 20개 (1침상가 22개) 월 700만, 매매가 7억 8천
- ② 용봉동 용봉지구 미래도 A 코너 룸 19개 (1침상가, 4층 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대지 106평 월수익 900만, 매매가 11억
- ③ 동구 대인동 고사원 룸 72개 월수익 1천2백, 매매가 21억
- ④ 전대정문 2분, 올대리석시공, 신축 4층 주택 월수익 400만, 매매가 6억 5천
- ⑤ 동산대 후문 2분, 올대리석시공, 신축 4층 주택 월수익 150만, 매매가 10억
- ⑥ 생촌동 원룸 1개 (운천역2분) 매매가 4천8백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올수리) 월수익 9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1억, 용 6억)
추천물건 영주동 (화정동) 상가건물 1~2층 상가 3층주택 삼거리 코너 앞
매매가 7억 3천 (보 1억 4천)

- ① 나주시 상명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앞 1층 6칸, 2층 4칸 월수익200만, 매매가 2억8천
- ② 서구 상무지구 정원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 ③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빌라부지) 도로2차선면 바닥5분 무화과 나무 식재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매매가 3억2천
- ④ 수원지구 모이델/111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매가 3억5천
- ⑤ 수원지구 3층 롯데마트 옆 4층중 3층 62평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 ⑥ 서구 상무지구 수림6층 15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4천8백
- ⑦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억

(주)대신 010-6670-9800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5층 학원)

평수 100평 (전용 80평) 이면도로코너 학원리모델링 함 주차 4대 무료 확보(주위 200대) 중심 상무지구에서 저렴함 보 3천, 월 130만

나주 상가 2층건물 매매

- ① 영신중, 고교 앞, 영강 초교 앞
- ②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 ③ 대지 210평 (1층 6칸)
- ④ 건물(2층2칸), 학원적합

매매가 2억 8천

010-6670-9800

(주)대신경매

근린사실/ 근린주택

- ① 순천시 행동 (토 373㎡, 건물 1,304㎡) 감정가 17억, 최저가 12억
- ② 순천시 연향동 (토 146㎡, 건물 276㎡) 감정가 5억7천, 최저가 5억7천
- ③ 순천시 장전동 (토 423.1㎡, 건물 1,138㎡) 감정가 10억, 최저가 5억7천
- ④ 남구 백운동 (토 315㎡, 건물 636㎡) 감정가 5억2천, 최저가 3억5천
- ⑤ 남구 지석동 (토 105㎡, 건물 88㎡) 감정가 8천1백, 최저가 5천1백
- ⑥ 북구 오룡동 (토 1,199㎡, 건물 3,987㎡) 감정가 35억9천, 최저가 24억
- ⑦ 동구 계림동 (토 445㎡, 건물 1,558㎡) 감정가 10억8천, 최저가 4억9천
- ⑧ 북구 일곡동 (토 9,600㎡, 건물 250㎡) 감정가 41억, 최저가 41억

근린 상가

- ⑤ 서구 차평동 (대 37㎡, 건물 165㎡) 감정가 3억6천, 최저가 1억
- ⑥ 광산 도산동 (대 91㎡, 건물 128㎡) 감정가 1억2천, 최저가 5천5백
- ⑦ 북구 중흥동 (대 13㎡, 건물 32㎡) 감정가 1억9천, 최저가 8천5백
- ⑧ 서구 금호동 (대 140㎡, 건물 286㎡) 감정가 6억5천, 최저가 4억5천
- ⑨ 광산 월계동 감정가 2억2천, 최저가 1천5백
- ⑩ 서구 풍림동 감정가 8억7천, 최저가 4억8천

주요소

- ① 서구 미림동 (토 1,132㎡, 건물 278㎡) 감정가 9억9천, 최저가 6억9천
- ② 남구 안동동 감정가 7억, 최저가 4억9천
- ③ 광산구 북동동 감정가 8억8천, 최저가 8억9천

토지

- ① 서구 매월동 (토 1,960㎡) 감정가 3억5천, 최저가 2억4천7백
- ② 남구 봉선동 (토 417㎡) 감정가 1억5천, 최저가 9천4백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학원

이제 경매는 대중화시대

경매학원

↓

- ① 기본 실전스터디반
- ② (평생 회원반, 소수 정원제) (경매 입찰부터 매매, 임대)

↓

개발 건축 리모델링까지 원스톱

↓

- ① 수요일 오전10시~12시 (저녁 7시30분~9시)
- ② 목요일 오후7시30분~오후9시

경매 컨설팅 헤드립니다

010-6832-9700
062-382-5500